

벨기에, 여행 정보
→ 브뤼셀 및 인근 명소
19년 12/10 기준

브뤼셀 및 인근명소



1. 브뤼셀

<그랑플라스 (Grand Place) >

- 브뤼셀의 주 광장으로, Victor Hugo가 '거대한 광장'이라고 감탄했듯이 바로크 예술의 장엄함을 과시하고 있다.
- 꽃시장부터 일요일 아침의 새시장, 또 여름밤의 아름다운 조명에 반사되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즐기는 음악쇼(22:30, 23:00시 2회)까지 다양하다.
- 2년에 한번씩, 8월 14일부터 약 80여만 송이 생화로 카펫트 모양을 만들어 3일 동안 전시

< 브뤼셀 시청 >

- Grand Place 광장에 위치한 고딕양식의 아름다운 건물로 1402-1455년에 세워졌다. 주요 방문인사들을 위한 연회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민의 결혼식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오줌싸개 동상 (Manneken Pis) >

- 17세기에 Jérôme Duquesnoy가 조각한 어린 소년이 오줌 누는 모습으로 Grand Place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브뤼셀의 유머감각과 기상을 구체화한 전설적이고 상징적인 동상이다.
 - 1698년 화란총독이 처음으로 의복 선물을 시작하여, 브뤼셀을 방문하는 많은 국민들이 의상을 만들어와 입히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다. 지금까지 선물 받은 의복들이 시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색동한복도 있다.
- 주소 : Rue de l'Étuve, 1000 Brussels

오줌싸개 동상 이야기

- 사람들이 세계 3대 실망스런 볼거리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주로 거론되는 것이 덴마크 코펜하겐 항구의 '인어공주상', 독일 라인강변의 '로렐라이 언덕의 요정상',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의 '오줌싸개 동상'이다.
- 그러나 50cm 크기 밖에 되지 않는 벨기에의 '오줌싸개동상'은 세계인들의 귀여운 마스코트로 인정받고 있으며, 벨기에에 엄청난 관광수입을 안겨다 주는 원동력으로 브뤼셀의 영원한 상징적 존재가 되고 있다.
- 현재의 오줌싸개 동상은 1960년 도난당했던 것을 어느 날 훼손된 채로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때 발견된 조각들을 모아 다시 복원해 놓은 것이라 한다.
- 세계 각국의 귀빈들이 벨기에를 방문할 때나 특별한 계기에 이 동상에 의상을 입히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매년 4월 21일에는 만화 '스피루', 4월 27일에는 '넬슨 만델라', 7월 초에는 '프랑스 투어 싸이클 대회' 복장인 노란색 의상을 입힌다.
- 과거 주요 축제 계기에는 이 동상에서 물 대신 맥주나 와인이 나오도록 하여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도 몇몇 지역에서는 임의로 오줌싸개 동상을 만들어 맥주를 공급하는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 오줌싸개 소년이 인기를 끌자 벨기에의 지방 상인들이 1987년에 오줌싸개 소녀상 (Jeanneki Pis)을 만들어 브뤼셀에 기증하여, 소년 동상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다.



< 생 미셸 대성당 (Cathédrale St. Michel) >

- 13C에 착공하여 16C에 완공된 고딕양식의 대사원으로 정면의 두 탑은 높이가 69m나 되며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연상시킨다.
- 벨기에에서 가장 격조 높은 성당으로 Charles 5세 및 현 국왕이 대관식을 올린 곳이다. 내부의 스테인드글라스 유리창들이 아름답다.

< 왕궁 (Royal Palace) >

- 브뤼셀 중심에 위치한 현 Albert 국왕의 집무실로 외빈 접견, 만찬 등 국가행사를 개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 매년 7.21 후부터 9월초까지 일반인의 출입(월요일 제외)이 허용되고 있다.
- 주소 : Place des Palais, 1000 brussels

< Atomium >

- 1958년 세계 만국박람회 때 세워졌으며, 철의 분자 모형을 1,650억배 확대한 철골 구조물로 높이 102m(475피트), 직경 18m인 대원구 9개가 폭 3m인 관으로 서로 연결된 초현대식 건축물로서 원자시대를 상징한다.
- 주소 : Bd. du Centenaire, 1020 Brussels

< 고대 예술박물관 (Museum of Ancient Art) >

- 1876년에 건립된 4층의 고전 미술관으로 플레미쉬 회화에 있어 유럽 제일이며, 14 ~ 17세기 플랑드르파 화가(루벤스, 브뤼겔, 반다이크, 부츠, 멤링 등)들의 작품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
- 주소 : 3, rue de la Regence, 1000 Brussels

< 생깡뜨네르 공원 (Cinquantenaire Park) >

- 벨기에 독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880년에 만들어 졌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건축 문화유산 중의 하나다.
- 꽃밭, 잔디밭, 고목 등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전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공원 중앙에는 웅장한 Palais du Cinquantenaire가 있고 그 양쪽으로 건축가 Girault가 디자인한 기념 아케이드가 1905년에 추가로 세워졌다.

< 현대 예술박물관 (Museum of Modern Art) >

- 고전미술관과 연결되어 있는 현대미술관에서는 앙소, 고갱, 마그리트, 델보, 샤갈, 마티스, 프란시스 베이컨 및 벨기에 추상화가 피에르 알첸스키 등 뛰어난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백남준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다.

< 왕립 미술. 역사박물관 (Museum of Royal Art and History) >

- Cinquantenaire 공원 안에 위치하며, 주로 고대 이집트, 그리스, 구로마, 동양, 이슬람 및 비잔틴 문화 등 골동품 및 장식 미술을 망라했다.

< 왕립군사박물관 (Royal Museum of Army and Military History) >

-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군사박물관 중 하나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곳에는 약 10만점의 전시물이 있다. 많은 전쟁과 그 기간 동안 주둔했던 군대 등을 통하여 벨기에 역사의 발자취를 볼 수 있다.
주소 : 3 Parc du Cinquantenaire, 1040 Brussels

< 악기 박물관 (Music Instruments Museum) >

- 약 1500개의 각종 악기가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음향 및, 시각효과를 살린 실내장식이 돋보인다.
주소: Rue Montagne de la Cour 2, 1000 Brussels

< 테르뷔렌 공원 (Tervuren Park) >

- Soignes Forest의 북동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원으로 한때 귀족들의 사냥터였다. 잘 다듬어진 넓은 잔디밭과 아름다운 호수가 웅대한 숲과 어우러져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성스러운 작은 섬 (Ilot Sacré) >

- 그랑플라스(Grand Place)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날 상인들의 거점이었다. 대부분 자갈이 깔린 작은 길들로, “푸줏간 거리”, “향신료시장” 등 팔리는 상품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을 붙였다. 작은 뒷골목 안은 관광객을 위한 식당가로 바뀌었다.

< 사블롱 지역 (Sablon District) >

- 귀족 분위기가 나는 동 지역은 14-15세기부터 유래하며 그랑플라스(Grand Place)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다. 후기 고딕 스타일의 사블롱(Our Lady) 성당이 지역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 Grand Sablon에는 카페와 골동품 가게가 늘어서 있고 주말에는 골동품과 도서 시장이 열려 붐빈다.
- Rue de la Régence 건너편에 있는 Petit Sablon은 조용한 정원으로 16세기 장인들과, 1569년 스페인에 의해 처형된 2명의 플래미쉬 백작이었던 순교자 Egmont 및 Hoorne을 기념하고 있다 (Egmont Park라고도 부른다.)

2. 브뤼셀 인근지역

< 워털루 (Waterloo) >

- 엘바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이 웰링턴 장군과 Blucher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 간에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로 이 전투결과가 나폴레옹 시대의 막을 내리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워털루 전쟁을 기념하여 1824년 오렌지 왕자(당시 네덜란드의 윌리엄 2세 국왕)가 당시 부상당한 자리에 건립한 높이 45m의 인공 언덕이 있으며, 226개의 계단을 오르면 나폴레옹군의 대포를 녹여서 주조한 높이 4.5m의 거대한 사자상(28톤)이 있다.

< 브르쥬 (Brugge) >

- 바다라는 뜻의 Brugge는 50개의 다리가 운하에 걸쳐 있는 물의 도시로 북구의 베니스라고 일컬어지는데, 일찍이 중세기부터 상업도시로 활약하였고, 침대보등 레이스 산업이 성행하였다.
 - 운하에 떠다니는 백조와 중세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거리 풍경이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으며 플랑드르 화가들의 요람지로 “천정 없는 미술관”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거리가 예술품으로 가득하다.
- ※ 브뤼셀에서 97km, E40을 타고 Oostende 방향으로 가는데 약 한 시간 정도 걸린다.

< 안트워프 (Antwerpen) >

-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중의 하나로 해상교통의 중심지이자 동시에 세계 3대 다이아몬드 가공도시로서 보석상들이 즐비한 상업의 요지이다. 루벤스, 반다이크 등 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 주요 볼거리로는 마르크트 광장, Cathédrale, 왕립 고전미술관, Plantin- Moretus 박물관, Mayer van den Bergh 박물관, 루벤스하우스를 꼽는다. 브뤼셀에서 48km, E19 북쪽방향으로 탄다.

< 겐트 (Gent) >

- 플랑드르 지방의 정신적 지주이며, 한때 대학도시로 유명했던 겐트는 벨기에 제2의 항구 도시이자 산업 도시이기도 하다.
- 볼거리로 Baafs 성당(반 에이크의 명작 "신비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경배" 및 루벤스의 "바보 성인의 사명"등 소장), 종탑(Belfort), St. Niklaas 성당 등이다.

3. 음식

가. 벨기에 음식일반

- 벨기에 사람들은 음식 먹는 것을 하나의 예술(the art of fine eating)로 다룰 만큼 먹으며 즐기는데 시간과 정성을 다한다. 그런 연유인지 유럽에서 '식도락가들의 파라다이스'로 불릴 만큼 식당이 많고, 고급 식당이건 간이 식당이건 그 나름대로 실망을 주지 않는다.
- 저녁에는 비싼 식당이라도 낮에는 그날의 메뉴(plat du jour)를 주문하면 적당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음식 값에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서비스가 만족스러웠거나, 다시 들를 식당이면 음식 값의 5 ~ 10%를 지불하면 된다. Grand Place 근처 Ilot Sacré 지역은 먹자골목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식당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많이 있으니 바가지요금을 조심하도록 한다.
- 식당은 예약을 해야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서비스는 좋은 편이지만 음식 나오는 시간이 아주 느린 편이므로 식사 후의 약속을 15:00시 이후로 하는 게 좋다. 웨이터를 부를 때는 소리 내서 부르지 않고 시선이 마주칠 때 조용히 손을 들어 표시해야 한다. 주문받으러 왔다가 결정이 안 되어 다시 오게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어느 웨이터의 묘비명에는 '웨이터 아무개 씨의 묘 : 드디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다'라고 써 있을 정도이다.

- 벨기에의 전통요리는 Waterzooi로, 잘게 썬 야채와 크림소스를 곁들인 닭고기와 생선요리 및 Anguille au vert (레몬풀, 파슬리 등 몇 가지 향초와 함께 만든 장어 요리)가 있으며, 노루나 꿩 등 사냥해서 잡은 짐승을 특별 요리한 아르덴 지방의 지비에(Gibiet) 역시 벨기에 특산 요리로 손꼽힌다.
- 또한 전국적인 특미 요리는 역시 홍합 요리로 네덜란드의 Yerzek 지방의 홍합이 최상품이라 한다.
- 전통 야채 요리로는 Chicon(endive)로서, 샐러드, 수프 또는 치즈, 햄과 함께 익혀 먹는다. 또한 화이트 아스파라거스에다 삶은 계란 다진 것에 녹인 버터를 뿌려서 먹는 요리는 Flemish 전통 요리중 하나다.
- 치즈 종류도 80가지나 되고 디저트도 종류가 다양하다. 가장 메뉴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dame blanche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소스를 곁들인 것이다.

나. 초콜릿

- 벨기에에는 코트도르(Cote d'Or), 고디바(Godiva), 노이하우스(Neuhaus), 길리안(Guylian), 레오니다스(Leonidas)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이 생산되는 초콜릿 왕국이다.
 - 특히, 초콜릿의 품질 기준을 엄격한 법으로 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전통을 지키는 국가로 평가한다.
- 벨기에에는 연각 약 14만 톤의 초콜릿을 생산, 연간 14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초콜릿 관련산업 종사자가 7천명 이상에 이르고, 벨기에 국민의 연간 초콜릿 소비량은 약 8kg 정도이다.

< 벨기에 최고급 수제 초콜릿 전문점 Pierre Marcolini >

- '새로운 맛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모토로 하고 있는 Pierre Marcolini는 벨기에 최고급 초콜릿 전문점으로, 벨기에 내에만 10여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2), 쿠웨이트, 일본(4)에 진출
 - 초콜릿의 맛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포장으로도 매우 유명
- 1964년 벨기에 출생의 Pierre Marcolini는 쇼콜라티에 자격증뿐만 아니라, 케익의 파티세, 아이스크림의 그랑시에, 잼의 콘퓀즐 자격증도 지니고 있는 세계 최고의 디저트 전문가
 - 1991년 벨기에 최고 파티세 및 1995년 세계 최고 파티세로 선정
- Marcolini는 초콜릿 성분을 구성하는 원료선정에 있어 매우 까다로워, 최고 품질의 독특한 카카오 열매 및 다양한 맛을 내기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차나 과일을 찾기 위해 매년 전 세계 각지를 직접 돌아다닌다고 함.

다. 맥주

- 벨기에는 수많은 주류 감식사가 세계 최고라고 인정하는 맥주의 본고장이다.
 - 거의 1000여종의 맥주를 생산하는 맥주의 땅이며, 벨기에 사람들은 1년에 1인당 평균 1010리터의 맥주를 마신다고 하며, 이는 세계 6위에 해당(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영국 순)
- 오늘날 벨기에 맥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갈색 빛깔의 라거(Lager) 맥주로, Stella Artois는 '충분히 고급스러운'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영국의 최고급 라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 이 맥주는 Jupiler, Maes와 함께 '벨기에 맥주 삼총사'로 사랑받고 있음.
- Grimbergen와 Leffe는 생맥주로 널리 사랑받는 맥주이며, 과실맥주, 백맥주(Witbier, Hoegaarden) 등이 있고, 브라반트 고유의 맥주 Lambic은 그냥 그자체로 발효시켜 효모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특별한 맥주로 유명하다.

4. 쇼핑

가. 쇼핑지역

- **Anspach Center** / De Brouckère 메트로(전철역) 아케이드
- **Avenue Louise-Toison d'Or** / Louise 메트로 전철역에 위치
세계 디자이너 부티크들과 고급 상점들이 있다.
- **Bascule**
Avenue Winston Churchill에 가까운 Chaussée de Waterloo에 위치 / Inno 백화점과 여러 상점들이 있다.
- **Rue de Namur**
Porte de Namur 전철역에 위치 / Laura Ashley Clothing 인테리어 상품 및 디자이너 상점들이 많다.
- **City 2-Rue Neuve**
Rogier 전철역에 위치 / Inno백화점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상점이 입점한 큰 쇼핑센터로 보통 수준의 의류 상점들이 많다.
- **Galeries St-Hubert**
Grand Place 근처에 위치 / 벨기에산 전문점(레이스, 초콜렛, Delvaux 가죽), 가정용품 등을 포함한 고소득층을 위한 상가
- **Woluwe Shopping Center**
Woluwe-St-Lambert 구 Boulevard de la Woluwe에 위치 / Roodebeek 전철역
의류, 신발, 가정용품, 스포츠 용품, 장난감 가게 및 Inno 백화점, C&A 백화점과 Match 슈퍼마켓이 있는 북미식의 실내 쇼핑상가

나. 벨기에 특산품

< 벨기에산 벽걸이 등 선물용품 >

- Gobelins Art

브뤼셀 Grand Place 부근

주소: 6 rue C.Buls. 1000 Brussels / Tel: 02/512.04.94

- Textilux Center

주소: 41b, Rue du Lombard. 1000 Brussels / Tel: 02/513.50.15

< 초콜렛 >

초콜렛 속에 여러 가지 맛의 filling을 채워 만든 praline은 단연 벨기에의 명물이다. 무게로 달아서 판매하며 값도 상이하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Pierre Marcollini, Wittamer, Godiva, Neuhaus(Galleries St. Hubert의 가게는 130년이나 되었음), Corne Toison d'Or, Leonidas, Irsi, Manon, Mary's, Galler, Leonidas로 여러지역에 소재

< 크리스탈 >

가장 유명한 벨기에 크리스탈은 Val St. Lambert이며, Liège 부근에서 만들어진다. 공장 견학이 가능하며, 공장에서 second 제품을 약 50% 할인가로 구입 가능하다.

주소: 245 Rue du Val, 4100 Seraing / Tel: 04/337.59.87

< 다이아몬드 >

안트워프의 다이아몬드 세공역사는 500년을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장소이다. 가공 처리된 다이아몬드의 80%이상이 이 지역을 거쳐간다. 다이아몬드 구입 후 보증서 High Diamond Council(HRD)를 반드시 받도록 한다.

< 레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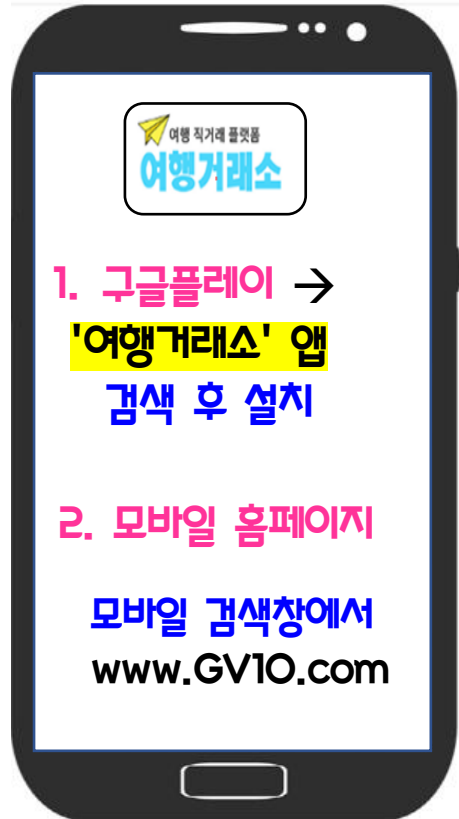
어디가나 레이스 상점이 눈에 띄며, 종류도 다양하다. 요즘은 'real lace'라고 불리는 것도 일부 손으로 만들어지고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니, 구입하기전 전통 벨기에 '진짜' 레이스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 Pewter >

골동 Pewter는 골동품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신제품은 상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Huy는 예전부터 주요 생산지였으며 요즘도 생산해 내고 있다. 회색에 푸른 무늬가 있는 질그릇도 벨기에 특산품이다. 손으로 구리와 놋쇠를 두들겨 만든 제품은 Dinant에서 주로 생산한다.

출처 :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 (131210)

갤럭시 폰에서



모바일 검색창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www.GV10.com

-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
-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
-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
- 현지 생생정보
-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
- 맞춤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세요 !!

아이폰에서

